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

클래식 컴플리케이션을 재해석한 두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

주요 특징:

- **새로운 인하우스 칼리버 834:** 42 시간 파워 리저브 제공, 209 개의 부품으로 구성
- **탁월한 위치메이킹:**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월드타임 및 그랑 데이트)과 특허 받은 날짜 디스크 디자인의 통합
- **뛰어난 장인 정신:** 141 개의 홈에 수작업으로 래커를 채운 레이저 컷 지도 디스크

예거 르쿨트르는 새롭게 개발된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834 를 장착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을 출시했습니다. 핵심적인 트래블 타임 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재해석한 이 모델은 다이얼 뒷면에 월드타임 인디케이터를 탑재했으며, 스틸 케이스 또는 15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되는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로 선보입니다. 새로운 타임피스는 1931 년에 독특한 회전 케이스가 발명된 이래로, 리베르소가 90 년 넘게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포츠 위치에서 하이 컴플리케이션까지 아우르는 끊임없는 혁신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스타일과 기능의 완벽한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르데코 미학에 기반을 둔 이 모델은 그랑 메종의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했던 기계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리베르소의 칼리버는 생산 초기부터 직사각형 케이스의 곡선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하여 칼리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1931 년, 이 모델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에는 그 형태에 맞춰 디자인된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충격과 습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칼리버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케이싱 링에 고정했습니다.

매뉴팩처의 이러한 기술적 도전은 1990 년대 초,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1 년부터 매뉴팩처는 기술적, 미학적 혁신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며 6 개의 새로운 리베르소의 직사각형 케이스 모양 칼리버를 개발했으며, 각 칼리버에 탁월한 클래식 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다시 도입했습니다. 이 컴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하는 메커니즘은 리베르소 케이스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제작되어야 했으며, 다양한 재해석에 따라 직사각형 다이얼의 균형 및 조화, 가독성을 위해 디스플레이도 다시 고안되었습니다. 1994 년, 메종은 뒷면 다이얼에 두 번째 다이얼을 장착한 최초의 리베르소인 듀오페이스를 선보이며 혁신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순한 스타일 대비를 뛰어넘은 두 개의 다이얼은 각 다이얼에 서로 다른 기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창조의 영역을 열어주었으며, 리베르소는 예술적 표현과 워치메이킹의 독창성을 위한 캔버스로 변신했습니다.

손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드타임

월드타임 워치는 24 가지 주요 타임존의 시간을 표시한다는 실용적인 가치 외에도, 현실에서 벗어나는 듯한 낭만적인 감성을 선사합니다. 이 컴플리케이션의 기원은 1884 년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전 세계 시간의 표준이 될 본초자오선으로 결정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월드타임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많은 초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1931 년이 되어서야 제네바 워치메이커 루이 코티에(Louis Cottier)가 성공적인 ‘월드타임’ 메커니즘을 최초로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월드타이머 메커니즘은 그의 발명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들은 1958 년, 메모박스 월드타임으로 컴플리케이션을 처음 마스터한 후 메모박스, 지오피직, 폴라리스, 듀오미터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월드타임을 선보였습니다. 1998 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를 트래블 워치로 재해석한 최초의 제품인 리베르소 지오그래픽을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1990 년대에 50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6 개의 컴플리케이션 리베르소 중 하나입니다. 2025 년, 그랑 메종은 리베르소 트리뷰트 라인에서는 처음으로 이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입니다. 칼리버 834 의 월드타임 컴플리케이션은 확인 및 조정의 간편합니다. 케이스를 크래들에서 분리하면 나타나는 케이스 상단의 숨겨진 푸셔를 통해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택타일 푸셔를 누르면 예리하고 선명한 슬라이드가 1 시간 간격으로 인디케이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풍부한 영감의 컴플리케이션을 강화하는 뛰어난 장인 정신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의 각 다이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걸작으로, 독특하고 매력적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간결한 앞면 다이얼에 장식된 질은 블루(스틸 케이스) 또는 초콜릿(핑크 골드 케이스) 컬러의 선레이 패턴이 리베르소 트리뷰트의 시그니처 아이콘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랑 데이트 디스플레이는 케이스와 어울리는 폴리싱 메탈 프레임에 자리하여 직사각형 라인을 더욱 강조해줍니다. 원형의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는 기하학적 라인과 대조를 이루며, 시계를 뒤집으면 드러나는 원형의 월드타임 디스플레이와 어우러집니다.

뒷면에는 폴리싱 처리된 케이스백에 월드타임 디스플레이가 세팅되었습니다. 스틸 모델은 블루 톤의 디테일이 차가운 느낌의 메탈과 대비되며, 따뜻한 핑크 골드 모델은 블랙 및 그레이 디테일로 완성됩니다. 3 개의 다른 층으로 디스플레이를 구성함으로써 놀라운 시각적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도시 이름은 케이스백에 직접 인그레이빙되었으며, 표시창 내부에는 낮과 밤을 표시하기 위해 회전하는 24 시간 링이 자리합니다. 중앙에 배치된 세계 지도는 경도가 표시되어 타임존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이 지도는 래커링과 레이저 인그레이빙 기술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매끄러운 스틸 디스크에서 시작하여 바다를 나타내는 부분을 레이저로 파내면 육지와 자오선은 돌출된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 래커로 바다를 채웁니다. 지도의 복잡한 형태와 자오선의 얇은 디테일을 감안하여, 래커는 주사기로 양을 조절해 수작업으로 조심스럽게 도포해야 합니다. 완성된 디스크는 여러 번 폴리싱을 거쳐 완벽하고 균일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래커와 메탈은 빛을 다르게 반사하기 때문에 은은한 입체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에는 폴로와 라이딩 부츠를 제작하는 아르헨티나의 유명 브랜드인 까사 파글리아노가 디자인한 두 개의 교체 가능한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틸 모델의 경우, 가죽과 캔버스를 결합한 버전은 여름 폴로 경기용으로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선보인 캔버스 및 가죽 부츠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다른 버전은 전체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핑크 골드 모델의 경우 골드 태닝 처리된 송아지 가죽 스트랩 및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출시됩니다.

매뉴팩처에서 자체 설계 및 제작, 조립된 새로운 통합 무브먼트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칼리버 834 는 예거 르쿨트르에서 항상 그렇듯이 추가 모듈이 아닌 완전히 통합된 칼리버로, 자체 설계, 생산 및 조립되었습니다. 케이스의 윤곽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의 무브먼트를 디자인하는 그랑 메종의 철학을 고려할 때, 직사각형의 리베르소는 전통적으로 원형 무브먼트를 위해 고안된 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 특별한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통합된 월드타임 컴플리케이션은 세계 지도를 중앙에 배치한 24 시간 타임존 디스플레이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작동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드타이머에서 기준 도시를 12 시로 설정하면 도시 디스크가 회전하고 24 시간 표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러한 관계를 반전시켜 도시 이름 디스플레이는 고정하고 24 시간 링이 회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선택함으로써 컴플리케이션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특별한 기능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정확한 시간 설정을 위해 24 시간 링이 1 시간 간격으로 점프합니다. 시간은 케이스 상단의 러그 사이에 숨겨진 눈에 띄지 않는 푸셔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은 그랑 데이트 디스플레이를 위해 2021 년, 직사각형 리베르소 케이스의 제한된 공간에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날짜 디스크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특허 CH715152). 일반적으로 “겹쳐진” 2 개의 디스크가 아닌, 2 개의 작은 디스크(1-9 단위용 1 개, 10, 20, 30 단위용 1 개) 가 나란히 놓인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날짜가 한 자릿수를 지나면 유닛 디스크의 작은 고리가 다른 디스크에 걸려 회전하면서 두 자릿수(10 일, 11 일, 12 일 등)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숫자의 높이가 다르지 않고 정확히 같은 평면에 표시할 수 있어 시각적 조화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통합 매뉴팩처에서 한 지붕 아래 모인 180 가지 기술을 증명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은 리베르소 디자인의 다양한 매력과 영원한 현대성에 찬사를 보내며, 시간 측정의 기계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 모두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끊임없는 탐구를 보여줍니다.

노란티엠 컬렉터 박스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의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와 함께 아이코닉한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컬렉터 박스를 선보입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케이스는 워치메이킹 혁신과 예술성의 정점을 상징하는 6 점의 리베르소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리베르소 탄생 60 주년을 기념하여 1991 년에 제작된 컬렉터 박스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에디션은 안목이 뛰어난 컬렉터에게 시계 역사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유니크한 리베르소 모델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내 6 개의 수납공간은 시계의 영구적인 유산과 유명한 컴플리케이션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박스는 그 자체로 럭셔리와 기능성, 시대를 초월하는 미학을 결합하여 탁월한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예거 르쿨트르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 – 스틸

케이스: 스틸

크기: 49.4 x 29.9mm, 두께 11.14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34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그랑 데이트(앞면), 월드타임(뒷면)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블루 선레이

뒷면 다이얼: 블루 래커

방수: 3 바(bar)

스트랩: 2 개의 교체 가능한 까사 파글리아노 디자인 스트랩: 블루 캔버스 및 송아지 가죽, 블루 송아지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714845J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 - 핑크 골드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49.4 x 29.9mm, 두께 11.14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34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그랑 데이트(앞면), 월드타임(뒷면)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초콜릿 브라운 선레이

뒷면 다이얼: 블랙 래커

방수: 3 바(bar)

스트랩: 2 개의 교체 가능한 스트랩: 골드 태닝 처리된 송아지 가죽,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핀 버클

제품 번호: Q714256J

15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